



준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월은 스님과 금강송

12월 11일 강원 삼척 준경묘 묘역에서는 승려문과 광화문 복원에 쓰일 110살 금강송의 첫 벌채가 있었다. “어명(어)이요”하는 외침 후 목수는 도끼를 휘둘렀다. 나무를 베기 전 고향만 친 것은 아니었다. 패지머리를 울린 상에 문화재청과 삼척시 공무원, 목수들이 절을 울리며 산신제를 지냈다. 전주 이씨 문중 사람들은 준경묘 제각에서 고유제(告由祭)를 울리며 나무를 베겠다는 축문을 읽었다.

이보다 앞선 12월 8일 조계종립대학 동국대(총장 오영교)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서 월은 스님은 역경원장에 해임됐다.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동국대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학교 측은 “가칭 불교학술원 설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지만, 졸지에 평생 일군 불사에서 물러나는 변을 당한 어르신 만큼이나 지켜보는 역경 관계자들도 부끄럽기 그지 없는 처사였다.

스승 운허 스님의 뒤를 이어 월은 스님이 역경원장을 맡은 지 15년, 돌도 자리 잡아 쉽사리 옮길 수 없는 세월이다. 110살 금강송도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켰기에 산신제 등을 지내며 예를 갖추고, 끝으로 ‘어명’이라 나무의 혼을 달랜다.

흔히 인재불사와 교육은 나무

에 비유된다. 인재 하나를 키우는 것이 나무 한 그루 자라는 시간만큼 긴 세월을 필요로 하기에 비교되는 것이라. 굳이 동체대비(同體大悲)까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수 팔순을 앞둔 월은 스님과 110살 금강송이 다르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역경불사는 도제양성, 포교와 함께 조계종단 3대사업이다. 스님은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불사라는 한글대장경 완간 사업을 이끈 ‘역경보살’이다. 그런 역경원 터주대감을 동국대는 사전에 아무 절차 없이 단 한번 회의만으로 내쳤다. 무엇보다 대가백의 안목을 잃는 것이 큰일이다. 월은 스님의 원력에 감동해 줄이었던 후원이 끊겨 역경사업이 위축되고, 조계종단의 관심에서 더 멀어질 것도 자명하다.

우스개 중에는 고희(古稀, 70)는 ‘아직 이른 나이’요, 희수(喜壽, 77)는 ‘지금부터 노락(老樂)을 즐기는 나이’, 산수(傘壽, 80)는 ‘아직 쓸모 있는 나이’라는 말이 있다.

이입법회에서 정각원장 종호 스님이 “법회가 열리는 것을 당일 아침 알았다”고 말했을 정도 로월은 스님에 대한 예우도 문제지만, 종단적 대사를 개혁의 명분하에 재가교수들에게만 맡기고 말 일인지 종립 동국대의 성찰이 필요한 때다.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종교화합 위한 소통 1번지 될 것” “특성화된 템플스테이 필요”

## 종교언론인협 제12회 종교신문언론인 심포지엄 개최

“종교언론사들간의 상호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와 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한국종교언론인협회(대표회장 장형준)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제12회 종교신문언론인 심포지엄이 12월 12-13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올 한해 동안 논란이 되었던 종교편향 문제를 되돌아보고 공동언론을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기조 발제에 나선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은 주제발표 ‘종교화합을 위한 종교언론의 역할’을 통해 “세상에는 하나의 종교만이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양한 종교적 신념체계를 인정하고 자기 종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의 종교가 인정받길 원한다면 상대주의 또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주변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언론은 종교편향을 눈으로만 보는가?”를 발표한 임연태 현대 불교신문 부국장은 “종교언론인협



12월 12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제12회종교신문언론인 심포지엄. 오른쪽부터 임연태 부국장, 지미숙 크리스천연합신문사 편집국장,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육관용 원불교신문사 편집국장, 서상덕 가톨릭신문사 취재팀장.

의회가 생명윤리, 환경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종교를 초월한 답론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강조하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종교언론 연합포럼·세미나 등을 개최하자고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종교언론의 화합으로 시대감동 해소를” 주제로 발표한 지미숙 크리스천연합신문사 편집국장은 “종교 지도자들의 예지력과 여론을 주도하는 종교언론의 화합된 목소리로서 시대의 갈등을 해소하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육관용 원불교신문사 편

집국장은 ‘종교화합만이 종교간 상생의 길’을, 서상덕 가톨릭신문사 취재팀장은 ‘종단내부에서부터 대화의 장 마련’을 각각 발표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종교언론인협회는 새 대표회장으로 정유제 밀교신문 편집국장을, 공동의장에 기독교신문 유달상 편집국장·원불교신문사 육관용 편집국장·가톨릭신문사 서상덕 취재팀장을 선출하고, 사무총장에 신원식 한국불교신문사 편집위원을 선임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조계종 제5기 고시위원장에 종석스님 선출

제5기 조계종 고시위원장에 종석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장·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종석 스님을 임기2년의 신입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앞서 교육원장 청하 스님은 종석 스님과 함께 제179회 조계종 중앙총회의 추천 동의를 거친 지환·지현·종호·지안·설우·종묵·본각·지형 스님에게 제5기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종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인 고시위원 스님들의 노력으로 5급, 4급, 3급 승가고시 종단의 중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승가고시를 통한 종단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도 실시될 승가고시 일정도 확정됐다. 고시위원 스님들은 5급 승가고시는

2009년 3월 7

일과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김진 기자



### 사미 이라크 종교위원장 조계종 방문

이라크 종교평화회의 사미 후세인 아트루수 위원장(이라크 국회의원이 12월 18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부터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서 진행된 이라크 어린이 환자 초청치료 감사차 마련됐다. 사회부장 세명 스님과 사미위원장, 사바나하 알아라비아 방송 기자들 이라크대표단은 종교화합의 메시지를 나눴다. 노덕현 기자

### 템플스테이 발전 위한 세미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좀 더 특성화시키고 외국인 대응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심원섭 박사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 나경원·전병헌 의원이 12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주최한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 박사는 ‘한국 대표 관광상품으로서 템플스테이의 가능성과 개선점’이란 발제를 통해 “템플스테이는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 지역경제활성화·관광수요시장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정부 및 지역산업과 연계 부족, 운영 인력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찰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중앙·지방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통한 외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남발전연구원 김준 박사는 ‘지역관광과 연계한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지방사람이 지역 구성원 교명화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관광과 연계한 템플스테이 현실적 요구”라며 “템플스테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찰의 경우 여객없이 지역문화와 잘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어 “해남 미항사의 경우 땅끝마을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만도 연인원 8천여 명이 찾는 등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사찰은 모듬지기 지역문화의 중심에서 서서 지역민과 호흡하며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지(금강) 스님의 생각이 큰 몫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항사는 현재 마을 당채, 산사음약회 등을 지역문화 일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테라사키 요시유키(前 Travel journal 지국장)는 ‘템플스테이 해외 마케팅 방안’을 발표했다. 테라사키씨는 “요즘 한·일 여행사 모두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과 연계되는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33관음성지 템플스테이 상품을 일본 내 일제 판매하고, 한국여행의 단골상품으로 정착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구축, 한·일사무국의 조직적 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금강 스님(미항사 주지), 김성윤(前 테라사키 마케팅 상무), 대요 스님(화엄사 포교국장), 김득환(외교통상부 문화예술사업과) 등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Templestay.com’은 ‘2008 코리아 디지털미디어 어워드’ 공공 및 교육 분야에서 비영리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진성 기자

## 종단협, 대한불교법회종 제명

### 내년 3월 대통령 초청 기원법회 봉행

대한불교법회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제명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이하 종단협)는 12월 16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장기간 회비및 사업비를 미납하고 참여가 저조하며 대한불교법회종에 대해 제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 산하 회원종단은 총 26개로 줄었다.

종단협은 이날 회비및 사업비를 미납한 5개 종단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대한불교원용종,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열반종, 대한불교법사종은 미납된 회비 일부를 납

부하는 등 성실한 등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차기 이사회까지 징계를 유예했다.

종단협은 이어 내년 사업으로 △기축년 신년하례법회(1월 14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이명박 대통령 초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3월) △청계천 등담기 및 인천공항 봉축행사(4-5월)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예비회의) 4월, 본대회 10월) △제7차 중국불교계 초청 한국불교 수행체험(9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7억101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김성우 기자

# 대한불교원효종 종도화합과 종단발전을 위한 창종 47주년 종도대회

진리의 새벽을 여신 원효보살을 종조로 모신 본 종단은 종도화합과 종단발전을 위한 창종 47주년 종도대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다 음 -

일시 : 2009년 1월 6일(화) 오후 12시

장소 : 호텔경주교육문화회관 (경북 경주시 신평동 150-2) ☎ 054)745-8100

증명 : 임시종정 향운

봉행위원장 : 임시충무원장 응일

부위원장 : 종도회장 금봉, 임시사무총장 도봉

봉행위원 : 원로위원 벽송, 무진, 정향, 청은, 고산, 일휴, 혜봉, 대운, 도경, 경운, 창해

문의처 :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 02)735-0501~2 / Fax 02)736-3509

